

무궁애학원 2019년 4/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

결 재	담 당	국 장	원 장
	이진경	이진경	[서명]

실시일자	2019년 12월 05일(목)	시 간	15:30 ~ 16:30
참석자 (총 8명)	■ 운영위원(6명) 이선우 위원장 정해도 위 원 박민현 위 원 김범수 위 원 이상경 위 원 김은화 위 원 ■ 직원(2명) 이진경, 강말출	전체진행	이선우 위원장
		기 록	이진경 사무국장
		장 소	무궁애학원 내 스카이 카페
제 목	무궁애학원 2019년 4/4분기 운영위원회		
회의내용	○ 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5:30 개회선언(이선우 위원장) ■ 16:20 무궁애학원 일반현황, 4분기 주요사업 및 진행사항 2019년 추경 및 2020년 예산보고 ■ 16:30 폐회선언(이선우 위원장) ○ 성원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궁애학원 운영위원 6명 중 6명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인사말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다(이선우 위원장) ○ 무궁애학원 일반현황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진경 사무국장이 무궁애학원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거주인 현황(정원 85명, 현원 84명) · 부서별 현황 · 직원현황 ○ 2019년 4분기 주요사업 및 진행사항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진경 사무국장이 무궁애학원 2019년 4분기 주요사업 및 진행사항 보고하다. - 이선우 위원장 : 양산시 위탁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의 주관이 궁금하고 재가장애인 및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다. - 김은화 위원 : 양산시에서 올해 추진한 사업으로 동원과학기술대 		

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한 사업이다.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과정이 개설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아직 사업 결과는 정확히는 알 수 없음을 설명하다.

- 박민현 위원 :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좋으며 양산시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큰 부담없이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.
- 이선우 위원장 : 앞으로 평생교육과정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여가과정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정도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이선우 위원장 : 마중물직업재활센터는 운영주체가 어떤지 문의하다.
- 김은화 위원 : 현재 개인시설로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.
- 강말출 실장 : 지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참여하는 거주인들의 만족도가 높다.

○2019년 추가경정예산(안) 및 2020년도 예산(안) 보고

- 이진경 사무국장이 2019년 추가경정예산(안) 및 2020년도 예산(안)을 보고하다.
- 이선우 위원장 : 대체인력 채용은 잘 되는지 질문하다.
- 이진경 사무국장 : 계약기간이 보통 1년 또는 1년 6개월로 현재까지는 대체인력 채용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.
- 김은화 위원 : 인근 시설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되지 않아 1년 동안 4번의 채용공고를 냈다고 한다. 입사 후에도 몇 개월 일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례가 빈번했다.
- 이선우 위원장 : 계속해서 대체인력 채용은 필요할 텐데 인건비도 열악하고 거주시설의 일이 힘들어 채용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텐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
- 이선우 위원장 : 내년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인력 추가는 확정되었는지 질문하다.
- 박민현 위원 : 정부에서 어느 정도 확정되어졌으며 현재 양산시에 도 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다.
- 김은화 위원 : 예산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력 배치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. 이에 시설에서도 채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.
- 박민현 위원 : 인력 활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. 추가 되는 인력으로 지역사회 거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 인력

활용의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.

- 이선우 위원장 : 아마도 정부차원에서 인력지원은 기존 인력의 장시간 업무를 줄이고 기존 업무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보인다.
- 이선우 위원장 : 언어치료사, 물리치료사 미채용은 오래 된 것 같다.
- 박민현 위원 : 약 2~3년 전 지침상 인력배치 기준이 변경되면서 추가되어진 인력이다. 언어치료사, 물리치료사는 채용 및 활용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현재 시설 운영 방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채용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. 이에 시와 협의가 된다면 치료사 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의논이 필요하다.
- 박민현 위원 : 점차적으로 직원 수가 증가하고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노무관리가 중요해 질 것 같다. 현재 지침 안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(예: 주휴수당, 야간수당 등).
- 이선우 위원장 : 근로기준법이 강화될수록 현장과의 잦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질 것이고 결국 보건복지부는 보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.

○ 추가질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가질의가 없었고, 이선우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
회의 사진



장애인거주시설 무궁애학원